

##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

-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

김진욱<sup>+</sup>

(서강대학교)

최영준<sup>++</sup>

(고려대학교)

### [요약]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에서 배분되는 일-가족시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부의 유급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서 차지하는 남성의 비중을 근거로 일-가족 시간 배분을 4개의 모형(전통적 남성생계부양, 이중노동부담, 협조적 적용,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통해 각 유형에 소속되어 있는 정도를 점수화한 후, 각 모형의 소속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이중노동부담의 비중이 감소하고 협조적 적용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모형별 분포를 보면 전통적인 성분업에 고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4개의 시간배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역시 각 모형별 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성분업 인식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논의에 있어 가구내의 미시적 성분업 구조와 일-가족시간의 배분과 관련된 역동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방법론적 함의로 미시자료를 이용한 양적연구에서도 퍼지셋 활용이 방법론적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시간배분, 부부의 시간배분, 일-가족 양립, 퍼지셋, 퍼지셋 이상형 분석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B00129).

+ 주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여성주의 사회정책학자들이 지적하듯(Daly, 1994; Sainsbury, 1994, Orloff, 1996), 서구의 전통적 복지국가 모형은 기본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male-breadwinner) 모델에 근거한 것이었다. 완전고용과 보편적 소득보장은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여성들의 역할은 집안에서 무급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그 근본적 전제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노동의 성분화 현상은 점차 약화되어 왔고, 여성의 일-가족 양립문제가 주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해 왔다. 무엇보다, 이혼, 독신가구, 동거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저명한 사회정책학자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2009)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따른 전통적 성분업 구조의 변동을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으로 명명하면서, 이제 복지국가의 재편의 방향은 새로운 여성의 역할에 복지국가를 적용시켜가는 것에 그 핵심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성분업 구조의 변화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의 내용 등이 복지국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가족 양립의 현황과 가구의 성분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일-가족시간 배분의 미시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구내의 성분업 구조는 기혼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또,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기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늘리도록 하고 가족관련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서비스(보육)를 통한 것이든 아니면 부부의 유급휴가정책을 활용한 것이든, 근본적으로는 기혼(혹은 동거) 커플이 유급노동과 가족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분업화할 것인가 하는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결국, 복지국가의 미시적 기초인 가구 안에서 배분되고 있는 일-가족 시간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가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논의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일-가족 시간의 배분구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정책학이나 사회복지학이 시간연구에 갖는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일-가족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학이나 사회학의 범주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성분업 구조가 현실적으로 약화되어온 것을 연구의 배경으로 하면서, 주로 부부의 무급가사노동 시간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해 온 것이었다. 즉,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 왔으며, 주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모형들이 제시되어 온 것이다. 연구자마다 다양한 가사노동분담 모형이 제시되어 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가설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시간가용성(time availability),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 이중노동부담(dual burden), 성역할이념(gender ideology) 이론 등이다(Kamo, 1988:

Fuwa, 2004; Erickson, 2005). 시간가용성 이론은 유급노동의 부담이 적은 쪽이 가사노동을 더 수행한다는 것이고(Blood and Wolfe, 1960; Maret and Finlay, 1984; Berk, 1985; Atkinson and Huston, 1984; 이상 Kamo, 1988에서 재인용; Davis and Greenstein, 2004), 상대적 자원이론은 부부가 가진 물질적 자원과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비교우위에 의해 성분업이 결정된다는 것이며(England and Kilbourne, 1990; Hobson, 1990; Lindberg and Pollak, 1996; 이상 허수연, 2008에서 재인용), 성역할 태도(이념지향) 이론은 전통적인 성분업에 대한 부부의 태도나 이념이 가사노동 분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Blair and Lichter, 1991; Presser, 1994; Greenstein, 1996; Pittman and Blanchard, 1996; 이상 Fuwa, 2004에서 재인용). 반면, 이중노동부담이론은 가사노동분담의 가장 강력한 변수는 젠더(gender)로서, 여성의 유급노동이 증가하더라도 여성의 일로 구조화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다(Kamo, 1994; Coltrane, 2000; Bittman et al., 2003; Folbre, 2004). 특히, 전통적 성분업 모형이 여전히 강한 한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기혼 남성들의 가사참여 및 가족돌봄의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며, 궁극적으로 기혼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연구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손문금, 2003; 김진옥, 2005, 2008; 김수정·김은지, 2007; 전지형, 2010).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을 설명하려는 것이어서 남성들의 가사노동 시간(혹은 비율)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각 이론적 모형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변수들을 회귀모형에 포함시키는 분석모형을 주로 채택해 왔다. 시간가용성 모형은 남녀의 유급노동시간, 상대적 자원이론은 남녀의 인적자본 및 소득수준, 이중노동부담 모형은 성별, 성역할이념 이론은 전통적 혹은 평등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주요 독립변수였다. 그러나, 일과 가족시간은 어느 하나를 독립변수로 하는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매우 어렵다. 두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성향이 예측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성격은 각 기혼 커플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부의 일-가족 시간 배분을 유형화하는 시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유형화는 종속변수를 범주화시킴으로써 많은 정보를 상실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퍼지셋 연구방법을 대규모의 양적자료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즉, 본 연구의 주제인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면, 퍼지셋 연구방법을 대규모의 미시데이터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유형화 연구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99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가족시간에 대한 부담이 큰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일-가족시간 배분모형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둘째,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으로 이 모형들을 한국 사례에 적용하며, 셋째, 각각의 일-가족시간 배분의 이상형에 속해 있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모형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복지학계가 시간연구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 2. 이론적 논의

### 1) 일-가족 시간 배분의 이론 및 모형

남성은 유급노동을, 여성은 가족 보살핌을 전담하는 전통적 성분업 모형(남성생계부양자 모형, Traditional Male-Breadwinner Model, TM)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본 가정의 하나였다. 이러한 전통적 성분업에 대한 설명은 크게 경제학적인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에 의해 설명되어 왔는데, 경제학적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내 임금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여성주의 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학적 관점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의 성분업에 주목해 왔다. 베커(Becker)의 신가족경제이론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비교우위를 통하여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배분이 결정된다는 논리하에 전통적 성분업을 설명한다(Becker, 1981). 따라서 남성의 상대적 임금이 높은 노동시장 여건에서는 남성이 유급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전통적 성분업 구조는 가구를 경제적 효용의 단위로 한다면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이러한 입장은 실증적 가설로서 교환이론 혹은 상대적 자원이론으로 구체화된다(England and Kilbourne, 1990; Lindberg and Pollak, 1996). 즉, 부부가 일-가족과 관련된 시간배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가진 상대적 자원과 지위가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여성의 상대적 자원 혹은 순경제력(net economic power)이 상대적으로 높아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기여를 하게 된다면, 남성들은 여성의 시간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관련 시간의 투입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Coleman, 1988). 이렇게 기혼 남성들의 행위가 상황변화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협조적 적응 모형(Adaptive Partnership Model, AP) 가설이다.

반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성분업은 가구내에서 미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협의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젠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Thompson and Walker, 1989; Kamo, 1994).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구 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무급노동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취업한 기혼여성은 증가한 유급노동과 함께 기존의 무급노동이라는 이중노동부담을 지게 된다(Hochschild, 2001; 손문금, 2003; 김진옥, 2008). 나아가, 여성들의 임금이나 상대적 자원수준이 높다면 아내들은 무급노동시간을 줄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들의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무급노동에 더욱 애쓰는다는 일련의 연구들도 존재하는데(Thompson and Walker, 1989; Greenstein, 1996; Bittman et al., 2003), 이것은 상대적 자원이나 권력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성역할이 가사노동을 설명함을 의미한다. 즉, 성(gender) 자체가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노동부담 모형(Dual Burden Model, DB)은 한국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많은 실증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손문금, 2003; 김진옥, 2005, 2008; 김수

정·김은지, 2007; 전지형, 2010).

한편,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화된 젠더 구조보다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태도에 주목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른바 '성역할이념(gender ideology)' 이론은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성분업에 대한 부부의 인식과 태도가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부부가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Thompson and Walker, 1989; Hardesty and Bokemeier, 1989; Kamo, 1988). 또, 가사노동 분담의 결정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분담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s, 1987).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분업 의식이 유교적 문화의 틀에서 사회화되어 온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화된 성역할은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허수연, 2008). 부부(특히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상이하며 이것이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일차적으로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남성이 유급노동을 전담하는 경우의 가사노동의 수준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즉, 미취학아동이 있어 가족시간에 대한 압박이 클 때 전업주부를 둔 남편들도 기꺼이 가사를 분담한다면, 이를 전통적 모형과는 구별된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자 모형(Family-friendly Male Breadwinner Model, FM)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좀 더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실천으로 옮긴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부의 유급노동시간 및 가족시간의 상대적 기여를 교차시킴으로써, <그림 1>과 같은 4가지 모형으로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모형(TM)은 남성과 여성의 철저한 노동분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협조적 적용모형(AP)은 유급노동시간과 가족노동시간 모두 부부가 공유하는 유형을 설명한다. 이중노동부담 모형(DB)은 맞벌이를 하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전통적 성분업 하에 있는 유형을 의미하며, 이외는 반대로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자 모형(FM)은 남성이 유급노동을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은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sup>1)</sup>

1) 사실,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 혹은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즉 맞벌이의 일반화에 있다. 따라서, FM모형은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있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론화가 힘든 모형으로, 그 이론적 설명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FM모형을 설명할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는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제시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외부인들이 잘 관찰할 수 없는 부부간의 권력관계가 설명할 여지도 존재한다. 예컨대 카모(Kamo)는 시간가용성, 상대적 자원, 성역할태도와 함께 부부간의 권력관계(power)를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주요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Kamo, 1988). 물론, 상대적 자원이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격(personality)과 같은 다른 요소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배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강한 성격 또는 권력을 갖는다면, 가사노동분담의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Stafford et al., 1977; Kamo, 1988에서 재인용). 그러나, 카모가 지적하듯 이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규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공처가' 모형으로 불릴 수도 있는 FM 모형은 성역할태도와 함께 이러한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M 모형은 기본적으로 <그림 1>의 3/4분면을 채우기 위한 시도로서, 아직은 실험적인 가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의 하나이다.

		일(유급노동)	
		전통형	맞벌이
가족 시간	여성 전담	<b>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모형</b> (Traditional Male Breadwinner Model, TM)  남성이 유급노동 전담하고, 여성이 가족보살핌 전담	<b>이중노동부담 모형</b> (Dual Burden Model, DB)  부부가 모두 유급노동을 하나, 남성의 가족보살핌 시간 적음
	부부 공유	<b>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자 모형</b> (Family-friendly Male Breadwinner Model, FM)  남성이 유급노동 전담하나, 가족보살핌 부부가 함께 함	<b>협조적 적용 모형</b> (Adaptive Partnership Model, AP)  유급노동과 가족보살핌을 부부가 함께 함

〈그림 1〉 일-가족 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적 모형

## 2) 퍼지셋 이상형 분석

‘모호한 집합’을 의미하는 퍼지셋(fuzzy-set)은 명확하고 배타적인 속성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수행하는 기존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준다. 통상적인 유형화의 기초가 되는 전통적 집합이론은 어떤 속성에 속하는가 아니면 속하지 않는가의 두 경우만 존재한다. 그러나, 퍼지셋을 활용하면 각 사례는 여러 개의 속성이나 유형에 대하여 동시에 소속점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속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개별 사례가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운지를 평가하게 된다. 퍼지셋 연구방법은 최근 중범위 사례에 대한 질적비교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이상형분석이 대규모 양적연구에서도 대단히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선형관계를 가정하기 힘든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 주제에서 유형화 작업은 매우 유용한 분석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일종의 패러다임처럼 되어가고 있는 복지국가유형화론, 행정 및 경영분야의 리더쉽 유형, MBTI와 같은 인간성격 유형 등 하나씩 열거하기 힘든 수많은 유형화 연구의 예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화 연구는 대체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를 교차시켜 유형을 산출하는데, 각각의 변수는 어떤 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두 개의 반대 개념을 그 속성으로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통상적인 유형화의 과정이 전통적 집합이론

2) 특히 퍼지셋질적비교연구(Fs/QCA)는 다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변수중심의 양적연구와 소수의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질적연구에 이은 제3의 방법론으로 중범위 사례에 대한 적절한 실증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ihoux, 2003, 2006; Vis, 2007; Ragin, 2008; 최영준, 2009). 그러나, 퍼지셋을 활용한 연구는 중범위사례에 중점을 두는 Fs/QCA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경쟁적 특성이나 경향에 대한 소속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이분화 혹은 범주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퍼지셋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Kvist, 1999; 2007).

(crisp set)에 기초해 있음을 암시한다. 즉, 어떤 집합에 완전히 속해있거나(fully-in) 전혀 속해 있지 않은(fully-out) 두 속성만을 가정하며, 여러 변수가 있을 경우 진리표(truth table)를 구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다. <그림 1>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진리표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가족 시간 배분의 유형화: 진리표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 유형	유급노동 (맞벌이 여부)	가족보살핌 (부부공유 여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모형	0 (외벌이)	0 (여성전담)
가족친화적 생계부양자 모형	0 (외벌이)	1 (부부공유)
이중노동부담 모형	1 (맞벌이)	0 (여성전담)
협조적 적응 모형	1 (맞벌이)	1 (부부공유)

위의 진리표는 명확해 보이지만, 각 변수의 측정이라는 면에서는 현실세계에서 0과 1이라는 이분법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유형화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혼합적(hybrid) 혹은 모호한(fuzzy)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통적 집합이론에 근거한 유형화의 근본적인 한계이다(최영준 2009)<sup>3)</sup>. 결국, 네 가지의 유형은 이상형일 뿐, 현실 세계 혹은 실제 사례의 분포에서는 ‘어떠한 유형에 얼마나’ 속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호한 집합’을 의미하는 퍼지셋(fuzzy-set)은 명확하고 배타적인 속성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수행하는 기존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집합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준다(Kvist 2006).

퍼지셋은 0과 1로만 범주를 표시하지 않고 0과 1 사이의 값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집합에 소속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 준다. 이러한 퍼지셋의 원리를 활용하여 모든 사례가 모든 유형에 대하여 어떤 값(소속점수)을 갖도록 만들고,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하여 이분화 혹은 범주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퍼지셋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이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은 크게 실증적 지표의 구성과 퍼지셋을 활용한 조정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실증적 지표의 구성 단계에서는 이론과 현실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각 개념을 정확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Kvist 1999). 그러나, 지표선정의 단계는 대부분의 양적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 3) 본 연구의 예에서, 부부의 총 유급노동시간 중 남성의 비중이 얼마나 되어야 외벌이 혹은 맞벌이로 규정할 수 있을까? 또, 가족보살핌 시간에서 차지하는 남성의 비율이 몇 %나 되어야 부부공유라 할 수 있을까?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보고하더라도, 남성이 주 57시간을 일하고 여성이 단 3시간을 일하여 남성의 유급노동비중이 95%에 달한다 해도 맞벌이라 할 수 있을까?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주 50시간을 일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주 27시간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반면 남성의 가족시간은 3시간에 머물러 가사노동시간의 90%를 여성이 수행한다면, 이 상황을 부부공유라 할 수 있을까? 결국, 자연적으로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가 아니고 연속선상의 어떤 점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복지국가유형화 논의에서 네덜란드, 일본 등의 사례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hybrid)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 등, 기본적으로 유형화 논의에서 유형화의 각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퍼지셋이상형분석의 핵심은 두 번째 단계인 측정값의 조정(calibration)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정의 작업은 다시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각 개념 혹은 유형과 완전히 일치(fully-in) 혹은 완전히 불일치(fully-out)한다고 판단되는 기준, 그리고 그 개념이나 유형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고 구분하는 기준(cross-over)을 정한다. 그 다음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등 집합이론의 공리에 따라 개별 사례에 각 유형에 해당하는 소속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Ragin 2000). 이를 통하여, 어떤 개념의 이상형에 대하여 관찰된 사례들이 얼마나 일치(=1) 혹은 불일치(=0) 하는지를 0과 1사이의 수치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퍼지셋이상형분석은 전통적인 유형화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어느 한 사례가 하나의 유형에 배타적으로 속해 있다고 가정하는 유형화 분석의 경우, 각 변수의 기준점 부근에 있는 사례는 기준점의 수준이 조금만 변하여도 그 유형 자체가 변화될 수 있고, 특히 그 유형에 속한 모든 사례는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취약점을 갖는다.<sup>5)</sup> 또 전통적인 방식의 유형들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면, 선형회귀분석은 불가능하며, 4개의 유형 중 하나를 기준유형으로 선정하고 이 기준유형에 비하여 다른 유형이 될 공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활용할 경우 모든 사례는 모든 유형에 대하여 소속점수를 가지게 되므로, 얼마나 더 혹은 덜 속해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어 질적으로 상이한 사례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전통적인 양적연구에서 다항로짓을 써야 할 경우에도 각 유형에 대한 소속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과 2009년 생활시간자료이다. 1999년 처음 조사된 생활시간조사는 5년을 주기로 조사되고 있으며, 표본가구의 각 개인이 2일간 10분 단위로 구성

4) 퍼지셋을 통해 표현되는 0과 1사이에 있는 수많은 값들에 대하여 그 해석이 용이하도록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9구간의 범주가 가장 자세한 언어적 해석이 가능한 분류이다. 1은 '완전 일치', 0.83-0.99는 '거의 일치', 0.67-0.82는 '상당히 일치', 0.51-0.66은 '일치하는 편', 0.5는 '경계점', 0.33-0.49는 '일치하지 않는 편', 0.17-0.32는 '상당히 불일치', 0.01-0.16 '거의 불일치', 0은 '완전 불일치'.

5) 예를 들어, 남성이 유급노동의 100%, 가사노동의 14%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자. 남성이 가사노동의 15%를 담당하면 가족시간의 부부공유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점(cross-over)을 15%로 하면, 이 사례는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그런데, 이 모형에 속하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비중은 0-14.9%까지 다양한데, 이 모든 사례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그 기준점이 만약 13%라면, 이 사례는 가족친화적 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하고, 가족시간 비중이 13%이상인 모든 사례들은 동등하게 취급된다.



된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1999년 1차 조사의 표본규모는 약 1만 7천 가구의 10세 이상 가구원 4만 6천명이었고, 2009년 3차 조사에서는 8천 1백 가구와 그 가구원 2만 6백 여 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일-가족 양립에 대한 압력이 큰 기혼부부의 시간배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분석의 단위를 커플로 하고 남성이 주 40시간 이상의 전일제 유급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시간에 대한 부담이 큰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로 한정하였다. 또한 생활시간의 활용 양상은 평일·토요일·일요일 등 요일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일별로 분석을 달리하거나 요일별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 더 심하다고 판단되는 평일 자료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1999년 3,215쌍, 2009년 1,158쌍이었다.

한편, 일-가족 시간 배분 모형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는 분석에서는 1999년과 2009년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지만,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종속변수를 조정(calibration)하고 이를 중다회귀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2009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본 연구의 일-가족 시간 배분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 퍼지셋을 활용하지 않고 전통적 양적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가족시간의 배분을 기준으로 네 유형으로 분류한 후 다항로짓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이 경우에 모든 개별 사례는 네 모형 중 하나에만 속하고 (fully-in), 나머지 세 모형에는 전혀 속하지 않는 것(fully-out)으로 간주되며, 나아가 어떤 기준점(cross-over)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일부 사례가 속하는 모형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하여 네 가지 모형에 대한 각각의 소속점수를 산출하면, 한 사례가 어느 한 모형에만 배타적으로 속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급노동시간 및 가족시간 전체에 대한 남성의 비중을 원점수로 하고, 이를 퍼지점수로 전환하는 조정(calibration)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례는 일-가족시간 배분에 대한 네 가지 유형 모두에 대하여 0에서 1 사이의 소속점수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sup>6)</sup>

퍼지점수로의 조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유형에 완전히 속해 있는 정도,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정도,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정확한 중간점인 경계점(cross-over) 등 세 기준점을 연구자의 판단 하에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그 판단의 기준은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을

6) 실제 퍼지셋 분석을 수행하면, 이상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 0.95,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면 0.05의 값을 갖는다.

7) 퍼지점수로의 조정과정에서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경계점을 설정하게 된다는 문제는 퍼지셋 연구에서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지만, 탐색적인 성격을 갖거나 본 연구와 같이 연구의 성격상 상대적 기준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성과 관련된 한계점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자의적 기준설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 가지 경쟁적 기준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지만, 이러한 방법 자체가 경계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퍼지셋이 아닌 전통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더 큰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즉, 이분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짓을 사

경우 그 이론에 따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석표본의 분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경쟁적인 경계점 기준을 사용하여, 상이한 경계점을 사용하는 것이 회귀분석 모형의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sup>8)</sup> 그 세 가지 경쟁적 경계점 기준은 남성의 평균 유급노동비중을 기준으로 한 표준적 기준, 남성의 평균 가족시간비중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기준, 그리고 보수적 기준에 1표준편차를 더한 진보적 기준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의 상이한 경계점은 남성이 어느 정도나 가사노동을 수행하여야 가족시간을 ‘부부가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9년을 기준으로 부부 전체의 평일 유급노동시간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3.86%이고, 가족시간의 비율 평균 10.62%였다(〈표 2〉 참조). 표준적 기준은 남성의 유급노동시간 비중을 근거로, 맞벌이 여부와 가족시간의 부부공유 여부에 대한 경계점을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성의 유급노동 비중은 0.8386이므로 남성이 이 기준보다 유급노동 비중이 더 크다면 외벌이로, 작다면 맞벌이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가족시간 비중의 경계점은  $1 - 0.8386 = 0.1614$ 로 설정한다. 남성이 전체 유급노동의 대략 84%를 수행하므로, 가사노동의 16% 정도만 분담하면 ‘부부공유’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보수적 기준은 남성들의 평균 가족시간 비중을 그 기준으로 한다. 남성들의 평균 가족시간 비중은 0.1062이므로, 유급노동시간 비중의 경계점은  $1 - 0.1062 = 0.8938$ 이 된다. 진보적 기준의 경우,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 분담에 1표준편차를 더한 것을 적용함으로써 ‘부부공유’의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일-가족시간 배분의 각 모형에 대한 기준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2〉 남성의 유급노동 및 가족시간의 비중: 기술분석

	유급노동		가족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999년	.8474	2212	.0802	.1547
2009년	.8386	.2356	.1062	.1434

용할 경우 경계점의 자의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퍼지셋의 경우 어떠한 기준점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사례들은 해당 유형에 대한 값을 가지게 되지만(그 기준점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갖더라도), 다항 로짓의 경우 특정 기준점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게 되면, 해당되는 유형에 속하는 사례에 대해서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퍼지점수로의 조정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나, 전통적 집합이론(crisp-set theory)에 근거한 이분형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경계점 근처의 유사한 값을 모두 무시해버린 채 0과 1의 세계로만 변수값을 부여하는 더 큰 자의성을 발생시킨다.

〈표 3〉 각 모형별 기준점(threshold): 2009년

	표준적 기준 <sup>1)</sup>		보수적 기준 <sup>2)</sup>		진보적 기준 <sup>3)</sup>	
	유급노동 비중	가족시간 비중	유급노동 비중	가족시간 비중	유급노동 비중	가족시간 비중
2009년 기준점	.8386	.1614	.8938	.1062	.7504	.2496
유급노동 및 가족시간에 대한 남성의 비중이 다음과 같다면, 전통적 남성생계부양(TM) 모형에 대한 소속점수가 높음:	남성비중 >.8386	남성비중 <.1614	남성비중 >.8938	남성비중 <.1062	남성비중 >.7504	남성비중 <.2496
유급노동 및 가족시간에 대한 남성의 비중이 다음과 같다면, 이중노동부담(DB) 모형에 대한 소속점수가 높음:	남성비중 <.8386	남성비중 <.1614	남성비중 <.8938	남성비중 <.1062	남성비중 <.7504	남성비중 <.2496
유급노동 및 가족시간에 대한 남성의 비중이 다음과 같다면,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FM) 모형에 대한 소속점수가 높음:	남성비중 >.8386	남성비중 >.1614	남성비중 >.8938	남성비중 >.1062	남성비중 >.7504	남성비중 >.2496
유급노동 및 가족시간에 대한 남성의 비중이 다음과 같다면, 협조적 적응(AP) 모형에 대한 소속점수가 높음:	남성비중 <.8386	남성비중 >.1614	남성비중 <.8938	남성비중 >.1062	남성비중 <.7504	남성비중 >.2496

- 1) 표준적 기준: 남성 유급노동 비중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가족시간 비중의 기준점은 1-평균유급노동비중.
- 2) 보수적 기준: 남성 가족시간 비중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유급노동 비중의 기준점은 1-평균가족시간비중.
- 3) 진보적 기준: 남성 가족시간 비중의 평균 +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함. 유급노동 비중의 기준점은 1-(평균가족시간비중+1표준편차)

다른 경계점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사례들이 소속되어 있는 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까? 〈표 4〉는 우리가 활용한 표본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 1에서 사례 4는 일-가족시간 배분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사례 1은 남성이 유급노동 전부를 담당하는 반면 가사노동은 전혀 분담하지 않는 TM모형의 이상형을 보여준다. 사례 2는 남성이 유급노동의 절반을 담당하지만 가사노동은 전혀 분담하지 않는 DB모형의 전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례 3은 가족친화모형에, 사례 4는 협조적 적응모형에 해당한다. 이 네 사례의 경우 표준적, 보수적, 진보적 기준 그 어떤 것을 경계점으로 하든 소속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형의 변화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반면, 사례5에서 사례8은 모호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이한 경계점 기준을 사용할 경우 유형 자체가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5는 표준적 기준이나 보수적 기준을 사용하면 TM모형에 속해 있는 정도가 강하지만, 보수적 기준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FM 모형의 속성을 조금 더 가지게 된다. 사례 7은 표준적 기준이나 보수적 기준을 사용할 때 FM 모형에 더 가깝지만, 진보적 기준으로는 TM 모형의 속성을 더 가지고 있다. 사례 8은 AP모형의 속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더 강하지만, 매우 혼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어떤 한 유형에만 속한다고 판단하기 힘든 혼합적인 혹은 모호한 사례들로서, 특정 기준에 의해 어떤 유형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구분이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통적인 다항로짓보다는 퍼지셋을 활용한 소속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표 4〉 퍼지셋 소속점수로의 변환(calibration)에 대한 예 (2009)

사례	유급 노동 비중	가족 시간 비중	소속점수: 표준적 기준				소속점수: 보수적 기준				소속점수: 진보적 기준			
			TM	DB	FM	AP	TM	DB	FM	AP	TM	DB	FM	AP
1	1.00	.00	.95	.05	.05	.05	.95	.05	.05	.05	.95	.05	.05	.05
2	.50	.00	.23	.77	.05	.05	.21	.79	.05	.05	.27	.73	.05	.05
3	1.00	.38	.31	.05	.69	.05	.28	.05	.72	.05	.37	.05	.63	.05
4	.53	.47	.25	.25	.25	.75	.23	.23	.23	.77	.29	.29	.30	.70
5	1.00	.13	.65	.05	.35	.05	.48	.05	.52	.05	.81	.05	.19	.05
6	.59	.08	.29	.71	.19	.19	.26	.66	.26	.34	.34	.66	.12	.12
7	1.00	.20	.47	.05	.53	.05	.42	.05	.58	.05	.64	.05	.36	.05
8	.77	.32	.36	.36	.44	.56	.33	.33	.40	.60	.43	.43	.44	.56

### 3) 분석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가족시간 배분의 각 모형(TM, DB, FM, AP)에 해당하는 소속점수(membership score)로서, 각 모형은 세 가지 경계점 기준(표준적, 보수적, 진보적)을 사용하여 원점수가 퍼지점수로 조정된 것이다. 퍼지점수로 전환되기 전의 원점수는 부부의 유급노동시간 및 가족관련 시간의 총합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종속변수의 측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앞 절에서 자세히 언급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남성의 유급노동 및 가족시간 비중이라는 원점수 산출에 사용된 생활시간조사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족관련 시간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필요는 있다. 우선 유급노동의 경우 생활시간행동<sup>9)</sup> 중 대분류 '2. 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농림어업관련 일, 구지활동 등 일관련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시간의 경우, 대분류 '4. 가정관리'와 '5.가족 보살피기' 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가정관리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전통적인 가사노동이, 가족 보살피기에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보살피는 데 사용한 시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미취학아동을 둔 부부의 경우 가족보살핌에 대한 시간압박이 크고 또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가족 보살핌이 부부간에 대체되거나 역할분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항목 모두 '가족시간'으로 분류한 것이다.

9) 생활시간조사는 2009년을 기준으로 9개의 대분류(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에 50개의 중분류와 144개의 소분류로 생활시간행동을 구분하고 있다.

〈표 5〉 독립변수의 측정 및 기술통계

변 수	측 정	평균	모형포함여부	
			<1>	<2>
여성가구주	응답자가 제시한 가구주 성별 (여성가구주=1)	.01	○	○
남성35세 초과	부부 중 남성의 연령 (35세 초과=1)	.57	○	○
여성35세 초과	부부 중 여성의 연령 (35세 초과=1)	.33	○	○
남성주당노동시간	남성의 주당 유급노동시간 (단위: 시간)	54.9		○
남성주당60시간+	남성의 주당 유급노동시간 (60시간 초과=1)	.23	○	
여성주당노동시간	남성의 주당 유급노동시간 (단위: 시간)	15.9		○
남성대졸이상	남성의 학력 (초대졸 이상=1)	.64	○	○
여성대졸이상	여성의 학력 (초대졸 이상=1)	.55	○	○
미취학자녀 둘 이상	미취학 자녀의 수 (2명 이상=1)	.31	○	○
남성상위직종	남성의 상위 직종 종사 (관리/전문/사무직=1)	.45	○	○
남성소득	남성의 월간 소득 (단위: 만원)	255.4	○	○
여성소득	여성의 월간 소득 (단위: 만원)	53.2	○	○
남성항상바쁨	남성의 시간부족 인식 (항상 바쁘다=1)	.46	○	○
여성항상바쁨	여성의 시간부족 인식 (항상 바쁘다=1)	.36	○	○
남성진보적성분업인식	남성의 성분업 인식 (진보적 성분업 인식=1)	.50	○	○
여성진보적성분업인식	여성의 성분업 인식 (진보적 성분업 인식=1)	.68	○	○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은 가구의 기본적 특성으로서 가구주의 성별과 미취학자녀의 수가, 부부 개인의 특성으로 연령, 학력, 월소득, 시간부족 인식, 전통적 성분업에 대한 인식이 남녀 각각 포함되었다. 이중 가구주의 성별과 부부의 연령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로 회귀모형에 포함되었고, 미취학자녀의 수는 부부의 보살핌시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일-가족 시간 배분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이므로 독립변수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월소득과 학력 변수는 상대적 자원이론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기혼 남녀가 가진 인적자본과 물적자원의 수준에 따라 비교우위가 결정되며 이것이 일-가족 시간의 배분을 결정한다고 본다. 시간부족인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압박을 나타내며, 덜 바쁜 사람이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시간가용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변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전통적 성분업에 대한 찬반 여부는 성역할이론의 실증적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이다. 전통적 성분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일-가족 시간의 배분에 있어 더 평등적이라면 성역할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노동시장과 관련된 변수로서 남성의 경우 노동시간과 직종 변수가 추가되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포함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두 가지로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시간부족인식이 시간가용성 이론을 나타내는 주관적 차원의 변수라면 노동시간은 시간가용성 이론의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의 표본에서 맞벌이라고 응답한 부부의 비중은 37%였다.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그 기술통계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의 기술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은 남성이 주당 40시간 이상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미취학아동이 있는 기혼부부이다. 남성이 전일제 고용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에 불과하였다. 35세를 초과한 남성의 비율은 57%, 여성의 경우는 33% 였다. 남성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4.9시간으로 나타났다으며,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비율도 23%에 달하였다. 반면, 맞벌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성들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주당 15.9시간에 불과하였다. 우리의 표본이 미취학아동이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부부이므로 고학력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남성의 경우 대졸(전문대 포함)자의 비중이 64%, 여성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인 55%에 달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표본의 31%였다. 남성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상위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45%였고,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55만원, 여성은 53만원에 불과하였다. 시간부족인식의 경우 남성의 46%, 여성의 36%가 항상 바쁘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은 일, 여성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성분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남성은 50%, 여성은 68%로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전통적 성분업 인식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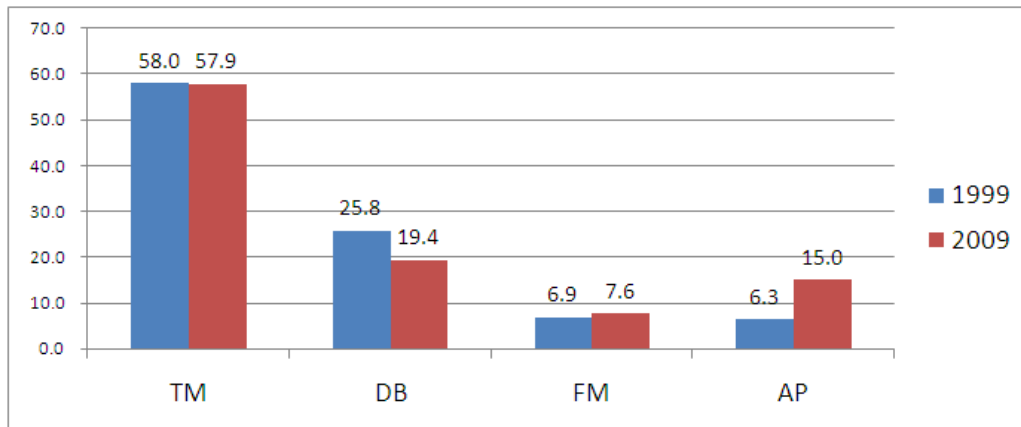
## 4. 분석결과

### 1) 일-가족 시간배분 모형별 분포의 변화

지난 10년간 가구의 일-가족 시간배분 모형의 분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1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사회현상과 사람들의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상 추이분석은 지난 10년에 그친다. 우선, 〈그림 1〉은 표준적 기준을 경계점을 한 모형별 빈도분포를 비교해주고 있으며, 〈표 6〉은 보수적, 진보적 기준까지 포함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모형과 가족친화적 생계부양모형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표준적 경계점을 기준으로, 1999년 TM모형은 58%, 2009년에는 57.9%로 거의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FM모형의 비율은 6.9%에서 7.6%로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두 모형을 합쳐보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부부의 약 2/3는 남성생계부양자 모형, 즉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유급노동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전히, 미취학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년간 그리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시간 배분 모형의 분포를 보면 지난 10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즉, DB모형의 비중이 1999년 25.8%에 달하였으나 2009년에는 19.4%로 감소한 반면, AP모형의 비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15.0%로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맞벌이 부부의 74%가 이중노동부담에 속했던 반면, 2009년에는 그 비율이 56%로 감소하였다. 이제 44%의 맞벌이 부부는 표준적 경계점을 기준으로 할 때 협조적 적응 모형에 속하는 셈이다.

<표 6> 각 기준에 따른 모형별 분포의 변화: 1999~2009

	1999 (N=3,215)			2009 (N=1,158)		
	표준적	보수적	진보적	표준적	보수적	진보적
전통적 남성생계부양	58.0	47.5	65.4	57.9	49.1	64.3
이중노동부담	25.8	22.9	24.9	19.4	16.1	22.1
가족친화 남성생계부양	6.9	15.5	3.4	7.6	15.9	2.8
협조적 적응	6.3	14.1	6.2	15.0	19.0	10.7



<그림 2> 각 모형별 분포의 변화: 표준적 기준

물론,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 전체적인 분포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 보수적 기준이든 진보적 기준이든, TM모형과 FM모형의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DB와 AP모형의 분포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수적 기준, 즉 가족시간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기준을 남성들의 평균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잡을 경우, DB모형은 1999년 22.9%에 불과하고 2009년에는 DB모형(16.1%) 보다 AP모형(19.%)에 속한 부부가 더 많다. 반면, 가족시간의 부부공유 기준을 평균에서 1표준편차 올림으로써 더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게 되면(진보적 기준), 2009년에도 맞벌이 부부의 2/3 이상은 여전히 DB 모형에 속한다. 결국, 지난 10년간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 추이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DB모형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만큼 AP모형에 속한 비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형별 분포의 변화는 어떠한 기준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경계점의 수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상당히 취약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례들을 어떤 한 유형에 배타적으로 소속시키는 전통적 집합이론의 논리보다는, 여러 경쟁적 유형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속해 있는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퍼지셋의 소속점수 비교방식이 더 타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일-가족 시간 배분 모형별 중다회귀분석

이제 네 모형 각각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종속변수는 TM, DB, AP, FM 모형에 속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퍼지셋 점수이다. 각 모형에 대하여 표준적, 보수적, 진보적 경계점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상이한 기준점을 사용할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지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간과 임금수준을 포함시킨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으로 구분하여 두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sup>10)</sup>, 결국 각 모형 마다 총 6개의 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TM 모형과 DB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에, AP 모형과 FM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요약되어 있으며, <표 6>과 <표 7>에 제시된 총 24개 회귀모형은 모두 최소한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세 기준 중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거의 같아서 기준점(cross-over)의 자의성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각 모형별 분석결과를 논의하도록 하자.

먼저 전통적 성분업 구조를 따르고 있는 TM 모형이다. 여성의 노동시간과 소득수준이 포함되지 않은 각 기준별 <1>번 모델의 설명력은 0.377-0.478, 이 두 변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0.546-0.70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TM 모형에 속하는 정도, 즉 TM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이 상위직종에 종사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TM 성향은 높아졌다<sup>11)</sup>. 또한 남성이 항상 바쁘다고 응답한 경우 TM 모형에 속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과 소득이 포함될 경우, 원래의 모형에서 가정하듯 이 변수들은 TM 성향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비교적 연령이 낮고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높은 경우에 남성이 유급노동을 전담하고 여성이 가족을 책임지는 전통적 성분업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유급노동의 부담이 적은 쪽이 가사노동을 더 수행한다는 시간가용성이론과 물적자원에 우위를 보이는 경우 가사노동을 덜 수행한다는 상대적 자원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이론 자체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시간을 설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TM 모형에서는 그 적실성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마지막으로, 남성이 진보적 성분업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 TM 모형에 속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성역할이념의 역할이 TM 성향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0) TM과 FM 모형은 여성이 유급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DB와 AP 모형은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간과 임금수준을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 두 변수가 회귀모형에 포함되면 매우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게 되지만,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요소(맞벌이 여부를 나타내는 여성의 유급노동 수준)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포함한 분석결과와 포함하지 않은 분석결과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

11) 남성의 연령이 TM 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성분업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것이므로 여성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 각 기준 및 모형별 종다회귀분석 결과의 요약 (2009, TM 및 DB 모형)

독립변수	전통적 남성생계부양 모형 (TM)						이중노동부담 모형 (DB)					
	표준적		보수적		진보적		표준적		보수적		진보적	
	<1>	<2>	<1>	<2>	<1>	<2>	<1>	<2>	<1>	<2>	<1>	<2>
여성가구주							-		-	(-)	-	(-)
남성35세초과	-	(-)	-		-	(-)	+	+	+	+	+	+
여성35세초과										(-)		
남성주당노동시간 <2>												
남성주당60시간+ <1>							+		+		+	
여성주당노동시간 <2>		-		-		-		+		+		+
남성대졸이상		(-)		-		(-)						
여성대졸이상							-		-		-	
미취학자녀 둘 이상							(-)		(-)			
남성상위직종	+		+		+		-		-		-	
남성소득	+	+	+	+	+	+	-		-		-	(-)
여성소득	-	-	-	-	-	-	+	+	+	+	+	+
남성항상바쁨	+	+	+	+	+	+	-		(-)		-	
여성항상바쁨	-	-	-	-	-	-	+		+		+	
남성진보적성분업인식	-		-		-							
여성진보적성분업인식												
Adj R2	0.426	0.625	0.377	0.546	0.478	0.702	0.327	0.533	0.296	0.495	0.369	0.592

주: p<.05수준에서 유의한 경우에만 그 부호를 표기하였으며, 괄호안의 부호는 p<.10 수준에서 유의함.

둘째,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여성이 여전히 가족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DB 모형이다. DB 모형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여성의 노동시간과 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1>번의 경우 0.296-0.369, <2>번의 경우에는 0.495-0.592로서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DB 모형에 속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독립변수는 TM 모형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하였지만, 그 방향은 반대였다. 남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낮을수록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 양상은 DB 성향에 더 가깝다. 여성이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응답한 경우 DB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시간부족인식은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매우 긴 경우(주당 60시간 이상) 가족시간에 투입하는 시간은 적었고 그 결과 맞벌이의 경우 DB 성향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성분업인식은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가용성 이론과 성역할 이념의 역할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시간 배분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여성이 고학력자인 경우 DB 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자원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각 기준 및 모형별 종다회귀분석 결과의 요약 (2009, AP 및 FM 모형)

독립변수	협조적 적응 모형 (AP)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 (FM)					
	표준적		보수적		진보적		표준적		보수적		진보적	
	<1>	<2>	<1>	<2>	<1>	<2>	<1>	<2>	<1>	<2>	<1>	<2>
여성가구주							+	+	+	+	+	+
남성35세초과		(-)				(-)						
여성35세초과												
남성주당노동시간 <2>						(-)		-		-		-
남성주당60시간+ <1>						(-)					(-)	
여성주당노동시간 <2>		+		+		+		(-)		-		
남성대졸이상												
여성대졸이상							+	(+)	+	+	(+)	(+)
미취학자녀 둘 이상	+	+	+	+	+	+					(+)	(+)
남성상위직종	(-)		-									
남성소득	-		-		-			(-)			-	-
여성소득	+	+	+	+	+	+			-		+	+
남성항상바쁨			-									
여성항상바쁨	+		+		+							
남성진보적성분업인식												
여성진보적성분업인식												
Adj R2	0.325	0.446	0.343	0.479	0.296	0.398	0.013	0.019	0.016	0.034	0.050	0.055

주: p<.05수준에서 유의한 경우에만 그 부호를 표기하였으며, 괄호안의 부호는 p<.10 수준에서 유의함.

셋째, 맞벌이를 하면서 남성이 가족시간을 공유하는 AP 모형이다. AP 모형의 설명력은 <1>번의 경우 0.296-0.343 정도였고, 여성의 노동시간과 소득이 포함된 <2>번의 경우 0.398-0.47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DB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시간이 길고 소득이 높으면 AP 성향이 높아 지지만, 이것은 맞벌이 유형들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이 항상 바쁘다고 인식 하는 것과 남성의 소득 등의 독립변수들도 DB 모형에서와 동일하게 설명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은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 경향 자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DB 모형과 AP 모형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시간가용이론, 상대적 자원 이론, 성역할 이념 등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시간 배 분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M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또 DB 모형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미취학자녀의 수였다. 미취학자녀의 수가 둘 이상이면 AP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맞벌이면서 자녀 양육의 부담이 더 큰 상황에서 남성들이 가족시간을 공유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DB 모

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분업인식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맞벌이 부부가 DB와 AP 성향으로 나뉘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부부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양육부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한국 상황에는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가족시간을 공유하는 FM 모형이다. 앞의 세 모형에 대한 회귀모델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전반적인 모델의 설명력은 매우 낮은 편이었고, 여성의 노동시간과 소득이 모델에 포함되었는가에 따른 설명력의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두 변수의 영향력 역시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는 FM 모형이 외벌이 가구 뿐 아니라 여성이 적은 시간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성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FM 모형의 경우 다른 모형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지 않았다. 다만, 남성이 전일제 고용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주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리고 여성의 학력이 높은 경우 FM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적을수록 FM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회귀모델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아 체계적인 설명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유의한 독립변수들로 미루어 볼 때, 부부간의 권력관계가 FM 성향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부부관계에서 여성의 권력이 더 클 경우 남성의 경제력이거나 성분업 의식과는 상관없이 FM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M 모형을 구성하는 이론적 논거가 아직 가설적 수준에 불과하고, 생활시간자료에 부부간의 권력관계 등 FM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러한 해석에 매우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정책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의 1999년 및 200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에서 배분되는 일-가족시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부의 유급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서 차지하는 남성의 비중을 근거로 일-가족 시간 배분을 4개의 모형(전통적 남성생계부양, 이중노동부담, 협조적 적응,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통해 각 유형에 소속되어 있는 정도를 점수화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소속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4개의 모형 각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취학 아동을 둔 기혼 부부간에 배분되는 일-가족시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이중노동부담의 비중이 감소하고 협조적 적응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모형별 분포를 보면 전통적인 성분업에 고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여전히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대부분은 유급노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2009년 표본에서 맞벌이 비중은 37%),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의 비중이 크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이중노동부담 유형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이중노동부담 유형에 속한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한 반면, 협조적 적응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가족시간 배분 구조가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남녀의 시간사용 양상이 수렴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이것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지적한 저슈니(Gershuny, 2000)의 적응지체가설(lagged adaptation model)이 한국 상황에서 지지될 수 있을지 향후의 장기적 추이연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맞벌이(double earner) 가구라는 요소와 가족시간을 분담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은 이중노동부담가설을 지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한편, 4개의 시간배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각 모형별 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DB모형과 TM모형에 속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독립변수는 동일한 것이 많았지만, 그 방향은 반대였다. 남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낮을수록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 양상은 DB 성향에 더 가깝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TM 모형의 성향을 더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모형과 이중노동부담 모형이 연속선상의 반대 방향에 위치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FM 모형과 AP 모형의 경우 다른 모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컨대, 미취학자녀의 수가 둘 이상이면 AP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분업인식은 AP와 DB 모형에서 별다른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남성과 여성의 소득수준, 학력, 노동시간 등의 영향력은 이 두 모형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 시간가용이론이나 상대적 자원이론이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시간 배분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보면, 맞벌이 부부가 DB와 AP 성향으로 나뉘는 것은 성분업 인식, 유급노동부담, 상대적 자원의 크기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 부부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양육부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FM 모형의 경우, 설명력 자체가 낮아 일관된 해석이 어려웠지만, 부부간의 권력관계와 같은 요소들이 그러한 성향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는 유추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활용한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추측에 불과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더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성분업인식은 TM모형을 설명하는데 부적 효과를 나타냈을 뿐, 다른 세 유형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아, 한국에서 성역할이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정책, 특히 가족정책의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일-가족 시간 배분구조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미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 성분업 구조에 고착되어 있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여성이 전업주부에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전히 무급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이중노동부담에 해당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임에도 일-가족 시간의 미시적 배분구조가 여전히 전통적인 성분업에 기초해 있다는 것은 현재의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나아가, 각 모형에 대한 소속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성분업인식의 영향력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시간 배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차원에서는 인식과 행위의 부정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가구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가족 시간 배분의 성불평등적 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적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시간배분 구조가 단기간 안에 변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

혼 여성의 보살핌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특히 보육)의 확충 및 내실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기혼 남성의 미시적 행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성불평등적 구조가 개선될 수는 없다. 북구 가족정책의 핵심인 ‘남성을 아버지로 만드는(Making men into fathers)’ 광범위한 정책적 수단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Hobson, 2002). 예컨대, 의무적인 부모휴가의 사용 및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시행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육아휴직급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혼 남성이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야간 근로 등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후속세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인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 외에도, 방법론적 측면의 함의도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수 20-50개 내외의 중범위 수준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퍼지셋 분석을 대규모의 미시자료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퍼지셋 방법이 양적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즉, 범주형 종속변수를 활용한 다항로지트 방법을 활용하는 대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종속변수를 조정한다면 양적연구의 유형화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퍼지셋을 활용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사회복지학의 방법론적 다양성이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생활시간조사와 국제시간조사(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와 같은 양질의 시간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계에서 시간연구를 등한시 해 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연구는 일-가족 시간의 배분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그쳤으나, 보살핌 노동, 자원봉사, 여가시간 및 구조, 노동시간, 삶의 질 등 사회복지학에서 시간연구의 활용가능성은 매우 크다.

## 참고문헌

- 김수정·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74.
- 김진욱. 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51-72.
- 김진욱.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 손문금. 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의 성격”. 『통계연구』 8(2): 23-58.
- 전지형. 2010. 중년층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307-337.
-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ittman, M., L. Craig, and N. Folbre. 2004. “Packaging Care: What Happens When Children Receive Nonparental Care?”. in M. Bittman and N. Folbre eds. *Family Time*. Routledge.
- Coleman, M. 1988.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9(1): 132-148.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208-1233.

- Davis, S. and T. Greenstein. 2004. Cross-national Variation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60-1271.
- England, P. and B. Kilbourne. 1990. Market, Marriage, and Other Mates: The Problem of Power. In Friedland, R. and Robertsson, A. (eds.), *Beyond the Marketplace: Rethinking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Aldine de Gruyter.
- Erickson, R. 2005. Why Emotion Work Matters: Sex, Gender,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337-351.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Oxford: Polity Press.
- Folbre, N. 2004. "A Theory of Misallocation of Time". in M. Bittman and N. Folbre eds. *Family Time*. Routledge.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751-767.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stein, T. 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585-595.
- Hardesty, C. and J. Bokemeier. 1989. Finding Times and Making Do: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in Nonmetropolitan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 253-267.
- Hobson, B. (ed.) 2002. *Making Men Into Fathers: Men, Masculinities and the Social Politics of Father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 1990. *The Second Shift*. Piatkus.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 \_\_\_\_\_. 1994.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 15: 348-378.
- Kvist, J. 1999.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Using Fuzzy Set Theory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 (3): 231-52.
- \_\_\_\_\_. 2006. Diversity, Ideal Types and Fuzzy Sets in Comparative Welfare State Research. In Rihoux, B. and Grimm, H. (eds.) *Innovative Comparative Methods for Policy Analysis: Beyond the Quantitative-Qualitative Divide*. 167-184. New York: Springer-Verlag New York Inc.
- Lundberg, S. and R. Pollak. 1996. Bargaining and Distribution in Marria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139-158.
- Ragin,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6. Set Relations in Social Research: Evaluating Their Consistency and Coverage. *Political Analysis*, 14(3): 291-310.
- \_\_\_\_\_.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t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houx, B. 2006.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and Related Systematic Comparative Methods. *International Sociology*, 21(5): 679-706.
- Rihoux, B. 2003.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Worlds? A Retrospective

- and Prospective View on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ield Methods*, 15(4): 351-365.
- Ross, C. 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 816-833.
- Thompson, L. and A. Walker. 1989. Gender in Family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 845-871.
- Vis, B. 2007. States of Welfare or States of Workfare?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16 Capitalist Democracies, 1985-2002. *Policy & Politics*, 35(1): 105-122.

## Household Types and Changes of Work-Family Time Allocation - Adapt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

Kim, Jin-Wook  
(Sogang University)

Choi, Young-Jun  
(Korea University)

Along with increasing mothers' employment, work-family reconciliation has been recognised as a key policy agenda in contemporary welfare states. Although various policy instruments have been introduced and expanded in recent years, the problem of time allocation within couples still remains as a fundamental issue, which has been largely underresearched at a micro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ominant types of work-family time allocation within married couple, and to apply these types to the Korean case using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rther, a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ll be implemen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each ideal type of work-family time allocation. The 1999 and 2009 Korea Time Use Survey datasets will be adopted for the analyses. Married couples are selected as samples only when men work 40 hours or more per week and they have at least one pre-school child. Empirical analyses cover three parts. First of all, four ideal types on work-family time allocation are classified by intersecting two core variables - the ratio of men's (paid) working and family (caring time plus domestic work) time to total working and family time. In this research, the four types will be labelled the traditional male breadwinner model (TM, high working and low family time), the dual burden model (DB, shared working but low family time), the family-friendly male breadwinner model (FM, high working but shared family time), and the adaptive partnership model (AP, shared working and shared family time). By comparing the composition of the four ideal types in 1999 and 2009, it will examine the trend of work-family time allocation in Korea.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s will be useful for investigating which characteristics contribute to the different degree of each fuzzy ideal score in the four model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agenda will be discussed.

Key words: Time use, time allocation of couple, work-family reconcilia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논문 접수일 : 11. 11. 18, 심사일 : 11. 12. 12, 게재 확정일 : 12. 03. 21]